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과 희곡작가 한 진(1931-1993)의 역할

김 필 영*

차 례

- | | |
|---------------------------------|-------------------------------------|
| 1. 머리말 | 3.2. 한 진의 희곡 작품과 소비에트 카작스 탄 한인문단 |
| 2.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의 형성과 발전 | 3.3. 한 진의 소설 작품과 민족주의적 색채 |
| 3.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과 희곡 작가 한 진 | 4. 마무리 |
| 3.1. 한 진의 생애와 사회적 배경 | |

1. 머리말

1937년 원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된 한인들은 카작스탄(카자흐스탄의 카작말 표기)의 옛 수도인 크즐오르다시에 원동고려사범대학을 옮겨오고 조선극장의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이주 한인들은 1923년 원동에서 창간되어 강제 이주 직전까지 원동에서 발간되었던 민족신문 『선봉』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레닌기치』를 창간하여 민족말 계승과 문화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레닌기치』는 고려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던 유일한

* 경기대학교 연구 교수

지면으로 카작스탄 한인문학의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레닌기치』의 창간은 바로 카작스탄 고려사람들의 민족문학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카작스탄 이주 후, 조선극장, 『레닌기치』, 그리고 원동고려사범대학에 바탕을 두고 설립된 크즐오르다사범대학에서 활동하던 제1세대 고려사람들은 60년대 후반이 되면서 연금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이들의 뒤를 이을 능력 있는 인재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카작스탄 고려사람 제1세대는 대부분이 원동에 있었던 민족학교에서 초, 중등교육을 마쳤거나 한인 사범학교 혹은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카작스탄으로 이주한, 한 진(1931-1993) 세대의 고려사람들은¹⁾ 소련 정책에 의하여 더 이상 한글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러시아말로 글말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제2세대 고려사람들에게 입말 형태로 보존된 민족말인 고려말은²⁾ 그들의 글말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카작스탄 고려사람 제2세대들의³⁾ 민족글말 생활의 공백을 메워주고 민족말 보존에 기여한 사람들이 바로 한 진과 같은 정치적 이유로 망명한 북한 유학생 출신 한인과⁴⁾ 세계 제2차 대전 시 일본군에 징용된

- 1) 현재 카작스탄에 살고있는 한인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로 1937년 카작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고, 둘째는 일본군에 징용되어있던 한인들로,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사할린에 잔류되었다가 1970대 말에 카작스탄으로 이주한 한인들이고, 셋째는 1950년 이후 북한에서 소련에 유학한 학생들 가운데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여 카작스탄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숫자로 볼 때 두 번째와 세번째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미미한 편이고, 역시 첫번째 부류인 1937년 강제 이주된 한인들이 카작스탄 한인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려사람들이다.
- 2) 카작스탄 고려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김필영, 「송 라브렌티의 『기억』과 카작스탄 고려사람들의 강제 이주 체험」, 『비교한국학』 제4호(국제비교한국학회, 1998), 107-133쪽.
- 3) 카작스탄 한인 제1세대가 강제 이주시 이미 성인이 된 한인들을 일컫는 명칭이라면, 제2세대는 1937년 강제 이주 전후에 태어나서 카작스탄에서 소련의 교육을 받고 자란 한인 세대를 가리킨다.
- 4) 카작스탄 고려사람 작가 가운데 대부분이 조선에서 모스크바에 유학한 전연방국립영화대학 출신들로 모두 소련에 정치 망명한 사람들이다. 1999년 6월 12일 글쓴이가 연출가 최국인님과 알마티(알마아타의 카자어 표기)에서 가진 대화 내용에 의하면 전연방국립영화대학에 입학한 1950년대 당시 조선 유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51년에 연출과 최국인(1926년생, 카작스탄 거주)과 희곡과 리경진(필명 리진,

후 사할린에 억류되었다가 카작스탄으로 이주한 한인들이다.

한 진은 희곡을 전문으로 쓰는 작가이지만, 몇 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주로 역사적 사건이나 민속적인 소재를 다룬 희곡 작품을 써왔으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발표한 단편소설에서는 강제이주로 말미암아 문화적으로 억압당하는 소비에트 카작스탄 고려사람들의 민족 정체성 문제를 작품의 주제로 부각시킨다. 이는 정치적 망명이라는 그의 생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소외당한 고독한 작가 정신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려사람들이 가슴 속에 간직하여 오던 강제이주와 관련된 비밀들을 뒤늦게나마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그의 소설 작품은 당시 역사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한인문학 발전에 기여한 작가 한 진의 역할을 알아 보는 데 있다. 작품 자체의 분석보다는 작가론에 중점을 두고, 작품에 반영된 잃어버린 고향이나 빼앗긴 조국에 대한 한 진의 민족주의적 작가 정신이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사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의 형성과 발전

카작스탄 한인문학은 카작스탄 고려사람 작가가 고려사람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민족어인 고려말로 창작하고 발표한 작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⁵⁾ 카작스탄 한인문학이 형성된 기점은 『레닌기치』가 창간된 1938년으로 잡

1930년생, 러시아 거주); 1952년에 촬영과 징린구(1931년생, 다게스탄 거주), 희곡과 허웅배(필명 허진, 러시아 거주)와 한대용; 1953년에 촬영과 량 원식(1932년생, 카작스탄 거주), 촬영과 김종훈(1932년생, 카작스탄 거주), 연출과 김영설 (1932년생, 북한에서 폐병으로 사망), 희곡과 김순자(1929년생,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김정일 개인교수); 1955년에 촬영과 리진환(우크라이나 거주).

한대용, 허웅배 그리고 리경진의 필명이 모두 “진” 인데, 한진의 부인 말에 의하면 이들이 망명 이후 서로 참된 친구가 될 것을 맹세하며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5) 김필영, 「송 라브렌티의 기억과 카작스탄 고려사람들의 강제 이주 체험」, 『비교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레닌기치』가 소련에 거주하는 모든 고려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간된 신문이지만, 레닌기치사가 카작스탄 첫 수도인 크즐오르다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레닌기치』에 작품을 발표한 대부분의 작가들이 카작스탄에 거주한 고려사람들이었다는 점을 볼 때 레닌기치는 카작스탄을 중심으로 발행된 신문이라고 볼 수 있다. 『레닌기치』는 1938년 크즐오르다시에서 창간되어 199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순 한글판 일간 신문이며 고려사람들이 그들의 문학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지면이기도 하였다.

『레닌기치』에 발표되었던 작품의 경향과 당시 사회 상황을 참작하면, 카작스탄 한인문학은 다음과 같이 그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다. 제1기는 『레닌기치』 창간 시절부터 『레닌기치』가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신문으로 승격되기 직전인 1953년까지이고, 제2기는 『레닌기치』가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신문으로 지위가 승격된 1954년부터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기 직전인 1985년까지로 볼 수 있으며, 제3기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1986년부터 『레닌기치』의 제명이 『고려일보』로 바뀌기 직전인 1990년까지이고, 제4기는 『레닌기치』의 제명이 『고려일보』로 바뀌고 소련이 해체되어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카작스탄공화국으로 독립한 1991년부터 한인 강제 이주 60주년을 맞은 1997년까지이다.⁶⁾ 시기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1938-1953)는 강제이주로 말미암아 카작스탄 고려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억압을 받고 문화 활동에 있어서도 심한 통제를 받아 자유로운 문필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시기이다. 작품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도를 찬양한 것들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고려사람들에게는 거주 이전의 완전한 자유가 없었을 뿐더러 소련 당국의 정책에 의해 그들에게 공민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련 공민으로서의 권리 조차 보장 받지 못하던 역사적으로 참담한 시절이었다. 작품 내용에 대한 당국의 심사가 까다르웠을 뿐만 아니라, 고향이나 조국에 대한 향수의 표현이나 소련의 제도나 정책의 비판을 위한 문학적 상상력

한국학』 제4호(국제비교한국학회, 1998), 110쪽.

6) 자세한 것은 곧 발간될 글쓴이의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사』를 참고하기 바람.

은 허용되지 않았다. 시인 조명희(1894-1942)의 제자인 강태수(1908년생)가 1938년 크즐오르다사범대학 벽보 신문에 발표한 “밭 갈던 아씨에게”라는 시 작품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게 당국에 번역 보고되어, 반동으로 체포되고 그로부터 1959년까지 21여년간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강제이주로 말미암아 고려사람들이 소련 당국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은 민족문화의 암흑기로 카작스탄 한인문학 태동기에 해당한다.

제2기(1954-1985)는 『레닌기치』가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신문으로 위치가 승격되었을 뿐 아니라 이주 고려사람들의 지위도 승격이 된 시기이다. 고려사람들에게 공민증이 발급되어 이들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한 시기이며 문학적으로도 가장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한 시기이다. 제1기와 비교하여 볼 때 작품의 내용이 보다 전진해졌으며 어둡거나 우울한 면이 사라지고 이주지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고려사람들의 진정한 조국으로 형상화하고 있다.⁷⁾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는 소련에 정치 망명한 조선 출신 젊은 작가들과 사할린 출신 한인들이 단단에 합세하여 원동출신 이주세대 원로들과 함께 문학 활동을 하던 시기로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 형성기에 해당한다.

제3기(1986-1990)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의 영향으로 언론의 통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적 입장에서 볼 때 문화적 해빙기라 할 수 있으며 민족 감정의 문학적 표현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 한인문학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기간이다. 작품 내용에 드디어 이주라던가 고향이라던가 하는 어휘의 사용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 되찾아야 할 고향과 억압 받은 민족 감정이 문학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나 소련이 붕괴되고 만다. 기대 이상으로 빨리 실현된 언론의 자유 때문에 문인들이 심리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5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은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 성장기로 볼 수 있다.

제4기(1991-1997)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부터 고려사람들이 강제 이주 60주년을 맞은 1997년까지이다. 이 기간은 카작스탄 한인문학 과도기로 작품의 내

7) 김필영, 『『레닌기치』에 나타난 쏘베트 한인문학: 강제 이주지 중앙아시아의 시적 심상』, 『비교한국학』, 제3호(국제비교한국학회, 1997), 135-141쪽.

용에 뚜렷한 특성이 없다. 1991년 『레닌기치』의 명칭이 『고려일보』로 바뀌고 소련이 해체되자,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 문화 정책을 추종하던 『레닌기치』와는 달리 『고려일보』의 제작 방침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게다가 1950년대 소련으로 정치 망명한 조선 출신 작가들과 사할린 출신 한인들을 제외하고는 민족말로 작품을 쓸 수 있는 고려 사람이 거의 없다는 상황이 또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주 제1세대에 속하는 80, 90대 원로 문인들이 몇 명 생존해 있지만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레닌기치』가 발행 당시부터 제명이 바뀔 때까지 순 한글로 발행된 반면 『고려일보』는 지면이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준 데다가 그나마 지면의 절반이 러시아어로 발행된다. 이유는 물론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고려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글판 기사에 쓰인 어휘들도 조선의 문화어에서 점차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준어로 바뀌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진출한 한국의 선교단체나 회사들의 영향으로 『레닌기치』의 성격을 계승한 『고려일보』 자체의 특성마저 친조선적 성향에서 친 한국적으로 변하고 있다. 80-90대 원로 고려사람 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미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글로 발표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미 한국 사람들이 쓴 것들이거나 한국 표준어 식으로 가필한 것들이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카작스탄 사회주의 공화국이 독립한 이후 한인들의 강제 이주 60주년이 되는 1997년까지 민족 말과 문화 부흥을 위한 여러가지 행사가 카작스탄고려인연합회를 주축으로 개최되었고, 고려일보 지면에 몇 편의 문학 작품들이 발표되었으며, 강제 이주를 주제로 한 희곡 『기억』이 조선극장에서 공연되기도 하였다. 크즐오르다대학교, 알마티대학교, 카작대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외국어로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이들 젊은 고려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어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꿈일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이 차지하는 시기는 『레닌기치』 창간 시부터 소련이 해체되기까지의 50여년의 기간이다.

3.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과 희곡 작가 한 진

3.1. 한 진의 생애와 사회적 배경

한 진의 본명은 한대용으로 1931년 8월 17일 조선 평양에서 출생하였다.⁸⁾ 한 진의 부친은 중등학교 교사로 나중에 희곡 작가가 된 한태천이다.⁹⁾ 집안에 개인 서가를 설치할 정도로 많은 문학 서적을 소장하고 있던 부친 덕분에 한 진은 일찍부터 동서 고전문학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작가들은 셰크스피어, 몰리에르, 푸르게네프, 톨스토이, 체홉이었다. 한대용은 1948년에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 김일성종합대학교 외국어문학부 로어로 문학강좌에 입학한다.¹⁰⁾ 1950년 제2학년 과정을 마친지 얼마 안 되어 한국동란이 일어나자 조선인민군에 지원하여 서울-인천 전선에 참전한다. 한국동란 참전 경험은 후일 발표된 희곡 「고용병의 운명」이나 「나무를 흔들지 마라」에서

8) 작가의 생애에 관한 자료는 1999년 6월 13일에 가진 한대용의 부인 지나이다 이바노브나 베틀로바(Zinaida Ivanovna Vetrova 1935년생, 카작스탄 알마티 거주)님과, 생전에 작가와 가깝게 지냈던 연출가 최국인님과 가졌던 대담 내용의 일부임을 밝히며 이 자리를 빌어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

9) 한 진의 부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한태천이 쓴 글 2편과 한태천에 관한 글 2편이 있다. 신문에 게재되었던 부친의 글을 잘라서 한 진 자신이 A4용지에 다시 붙인 것이다. 그러나 이 글들이 게재되었던 신문지명은 밝혀져 있지 않다.

한태천이 쓴 첫 번째 자료는 1962년 10월 5일자에 게재된 「혁명 투사의 정신을 본받으며 연극 『청년 시절』을 쓰고』라는 제목의 것이다. 김일성 동지의 충실한 전사이며 열렬한 공산주의 투사인 박 달 동지의 청년시절을 희곡화한 청년 시절의 작품 구상 동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 작가는 1948년에 조선최고인민재판소의 참심원으로 일하였을 당시 박 달 동무를 처음 만났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보아, 1948년 이전에 교직을 그만 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자료는, 1963년 7월 16일자에 실린 「보통강야, 말하라!」라는 기행문으로 평양에 있는 보통강이 소재가 되고 있다.

한태천에 관한 첫 번째 글은 1962년 9월 28일자에 실린 「연극 축전 성황」이라는 것으로 한태천 작 「청년 시절」이 해산 연극 극장에서 공연되었음을 알리고 그 줄거리를 연극 장면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글은 날자가 기재되지 않은 「미학적 리상의 높이와 극적 형상 : 연극 『제 2의 탄생』을 보고」라는 연극 평론으로 연극 장면 사진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사리원 연극단이 공연한 한태천 작 「제 2의 탄생」이란 연극 공연을 비평한 글이다.

10) 조선의 학제에 있어서 강좌는 한국의 학과를 가리킨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창작 활동에서 중요한 소재 역할을 하게 된다. 포병부대에 소속되었던 한 대용은 인천 전선에서 수류탄에 맞아 왼쪽 손가락을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손목 동맥에 상처를 입는다. 1951년에는 소위로 진급하여 조선인민군 기관지인 『조선인민군』의 교정원으로 복무한다.¹¹⁾ 1952년 조선 정부에서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한대용도 이들 유학생의 일원으로 그 해 9월 모스크바에 있는 전연방국립영화대학(VGIK)에 입학하여 희곡학부(stschenarnyi fakultet)에서 공부하게 된다. 소련 유학은 어떤 선발 시험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당시 상황에 의한 것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청년들 가운데 약 200명이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소련에 유학을 가게 되었으며 국가에서 이미 결정한 학교에서 지정한 전공분야를 공부하게 된다.¹²⁾

스탈린이 사망한 뒤 소련은 후르시초프 시대가 시작된다. 스탈린의 개인 독재 행적을 비판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스탈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폭로한 비밀문서가 암암리에 대중들에게까지 유통된다. 한 학년도가 끝나고 방학 중인 1956년 8월, 조선 유학생 가운데 일부가 이 문서를 입수하여 읽게 되고, 비밀리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조선 정황을 들어 오던 유학생 일부가 스탈린에 비추어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독재를 비판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1957년 모스크바에 유학하고 있던 조선 유학생들 사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다. 이들 유학생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김일성의 개인 숭배에 반기를 드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전연방국립영화대학에서 공부하던 한 진을 포함한 10명의 유학생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TchK trudovoi partii Korei)에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11) 한대용이 남긴 자필 이력서에 의하면, 그가 군에 복무한 기간은 1950년 6월부터 1952년 3월까지 1년 10개월이다. 1950년 7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하사로, 1951년 10월부터 1952년 3월까지는 소위로 근무하였다.

12) 1991년 2월 23일자 『고려일보』에 게재된 「Чloveк, kotoryi nikogda ne budet telctym」(언제나 살찌지 않는 사람)이란 제목 아래 실린 한 진과의 대담 내용 참조.

사람들이 한 진을 가리켜 언제나 살찌지 않는 사람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살이 찌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이 가도 성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둘째는 교향에 대한 우수를 마음에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마음 속에 근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이 찌 여유가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공개서한을 보내는 상황에 이른다.¹³⁾ 같은 해 9월 재소련 조선유학생회 집회에서 단상에 선 허응배가 대사관의 관계 직원들이 참석한 면전에서 김일성 개인 승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앞으로는 유학생 집회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른다던가 당 정책 선전을 위한 노래를 한다던가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선언하였다.¹⁴⁾ 이들 주동 학생들은 반동 분자로 취급되어 체포 명령이

13) 위 인용문 참조.

14) 이 사건 이후, 소련에 정치 망명을 한 뒤에도 이들은 조선공산당 정책에 반발을 느끼고 혁명 수행을 위해 노력해 온 사실을 아래에 요약 인용하는 한 대용이 남긴 회의를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관호 속의 내용은 글쓴이가 덧붙인 것이다.

작년(회의록을 작성한 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몇 년도인지 알 수 없음) 8월 10일 정 추의 집에서 말이 시작되어 8월 11일 맹 동욱의 집에서 일정한 결말을 본 이들 동안의 모임에서 있었던 말들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되었다.

최국인과 정 추의 제의로 조선로동당 재건 준비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다. 첫째는 실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김일성이 그런 조직을 설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암살할 것이고 의심스러운 장가가(김중훈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프론트에서 거주하던 화학 박사 장한수라고 한다.)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를 없애 버리려고 할 수도 있다. 셋째는 맹동욱과 정 추와 같이 행동한 것은 그들을 포섭하려고 한 것인데, 이 조직을 그들이 자기 이익에 이용할 수도 있다. 넷째,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투쟁의 가능성이 배제되게 된다.

정치망명인이 처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당을 조직할 수는 없지만, 김일성 일파가 집권한 기간에 벌어진 수 많은 부정적 현상을 폭로하고 조선인민에게 진정한 길을 보여주고 역사의 진리를 해명하여 그들의 앞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본다. 일을 못 하게 되더라도 개인의 용감성과 애국심을 구실 삼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코 해서서는 안 된다. 맹동욱, 정 추, 리상조(일제에 대항하여 민족 해방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로, 조선 인민군 육군 중장 출신으로 한국전쟁 정전회담 시 조선 측의 수석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1950년대 중반기에 재소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지냈으나, 김일성 개인승배에 반기를 들고 소련에 정치망명을 하였다.)처럼 출세의 목적으로 큰소리만 쳐서는 될 일이 아니고 꾸준히 해야 한다. 맹동욱과 정 추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도, 영화대학 동무들에게 먼저 물어 보지도 않고 그들과 손을 잡은 최국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오늘 결정한 대로 최국인이 자기 비판을 안 하거나 준비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 조직을 없애 버리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취하겠다. 이번 사건은 영화대학 내에서 처음 발생한 엄청난 과오이다.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우리에게 조직은 없다. 그러나 국민이 는 우리들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 2) 국민이 는 공식적으로 준비위원회 앞에서 그 기도가 정치적인 오류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취소를 공포하라. 3) 맹동욱, 정

내려지고, 용케 도망을 친 몇 사람을 제외한, 이 운동에 동조했던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송환된다. 공개서한을 보낸 이들 유학생들을 조선으로 송환시키기 위하여 대사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전연방국립영화대학 기숙사에 찾아 왔으나 기숙사에 거주하던 다른 민족 학생들이 이들을 제지한 데다가, 대사관에서 이들에게 출두 명령서를 보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공개 서한문을 보냈던 이들 10명 가운데 허웅배가 11월에 체포되나, 평양으로 압송되기 직전 대사관 화장실 환기장을 통하여 탈출에 성공한다. 체포되지 않은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소련 중앙위원회 사상과에 정치 망명을 신청하여 무국적 신분으로 임시 거주허가를 받지만 당국의 허가가 없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¹⁵⁾

추가 우리 일에 지장을 주면 그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끊는다는 선언을 한다. 4) 리상조 동무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지시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그가 우리에게 지시할 권리도 없다.

회의록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최국인이 영화대학 동문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포섭하기 위해 끌어들이긴 했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간주된 맹동욱과 정 추와 손을 잡은 것을 행동지침 위반으로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영화대학 출신 정치망명자들 사이에 어떤 불문율의 행동지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5) 아래에 인용하는 한대용의 부친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의하면, 아들이 조국으로 다시 돌아 오도록 여러 번 설득하였으나 한대용이 응하지 않았던 것 같다. 편지의 첫째 장만 발견되어 발송 일자를 알 수 없지만, 한대용이 이미 결혼을 한 1959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나는 26일 김창만 부위원장을 찾아 뵙고 나의 일신상의 문제와 네 문제 또 창작에 관한 문제로 말씀드렸다. (.....) 네 문제에 대하여 말씀올렸을 제 김창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대려 내 오십시오. 그 애들은 바람이 들었습니다. 저이들은 당을 대상으로 이러구저러구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 하고는 대상이 안됩니다. 우리들은 그 애들이 세상에 날기 전부터 혁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국적도 없이 류량민으로 일생을 보내겠소. 물론 그 애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문제는 내가 관계합니다. 나는 한선생과 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부위원장 김 창만이 말하는 겁니다. 우린 아버지를 보고 또 믿고 교양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맞기겠소. 작곡가동맹에 와 있는 아무개도 광산에 보낸 것을 뒤에 알고 볼러다 작곡가동맹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머누리는 학교 교원으로 쓰겠소.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다니까 나오겠지요. 머누리가 젊은 나이에 당원이란니 매우 훌륭하고 전심한 동무라고 생각합니다.(밑줄 글쓴이) 당중앙위원회 김창만이 용서해 줄 테니 나오라 하십시오.

1958년은 한 진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해이다. 6월에 졸업 작품으로 「38선」(38-ya parallel)을 발표하고 전연방국립영화대학을 졸업한다. 이 졸업 작품은 나중에 발표된 「나무를 흔들지 마라」(Ne stoit raskachvat derebo)라는 희곡 작품의 바탕이 된다.¹⁶⁾ 졸업 후, 한 진은 소련 알타이지역 군사전략기지인 바르나울시의 텔레비전방송국 책임편집자로 발령을 받는다. 그 곳 여러 생산공장에서 여성, 청년, 광부들의 노동 현장과 의사들의 활동 상황을 취재 보도하였다. 1959년 3월 26일 러시아어문학을 전공한 러시아인 지니이다 베트로바와 결혼하여 안드레이와 드미트리 두 아들을 두게 된다.

1963년 고려사람들의 민족신문인 레닌기치사 문학부 직원으로 초빙되어 카작스탄 크즐오르다시로 간다.¹⁷⁾ 이 때부터 한 진이란 필명으로 「레닌기치」 지면을 통해 문학 활동을 시작하여 카작스탄 한인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한다. 1965년에는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국립조선극장 문학부장으로 임명되면서 희곡 창작에 몰두한다. 1978년 소련작가연맹에 가맹하고,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작가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한인문학 분과를 지도하며 젊은 신인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도하는데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다.¹⁸⁾

(.....) 너의 편지를 보면 어떤 각부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너의 문제가 해결이
않될 것 같이 기우를 늦기는데 대용아 김창만 부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의 부위원장이시다. 너 하나 따위를 가지고 거죽말을 한다거나 네에게 타격을
받게 할 어른이 결코 아니시다.(밑줄 글쓴이) 너는 큰 망명객인 하지만 네가 얼
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은 네가 신의주에 들어서자마자 네 눈으로 몸으로
늦길 것이다. (.....) 아버지도 당 생활을 십 여년 했고 정치도 안다. 예비로서 자
식의 불행은 모르고 너에게 편지 하지는 안는다. (맞춤법은 원문대로)

16) 1991년 2월 23일자 『고려일보』에 게재된 「Chlovek, kotoryi nikogda ne budet tolcymu」(언제나 살찌지 않는 사람)이란 제목 아래 실린 한 진과의 대담 내용 참조.

17) 위 인용문 참조.

18) 1993년 7월 17일자 『고려일보』와 1993년 7월 19일자 『Vechernii Almaty』(석간 알마티)에 실린 한 진의 제자 박미하일 소설가가 쓴 글 「Slovo ob uchitele」(스승에 관한 말).

한 진 선생은 여러 해 동안 카작스탄작가연맹 한인문학분과를 지도해 오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해 놓았다. 문학에서 첫 걸음을 옮기게 시작한 능력 있는 젊은이들에 대해 여러 가지로 배려하였다.

정치 망명을 한 지 20여년이 지난 1979년에야 그에게 소련 공민권이 부여되어¹⁹⁾ 보다 자유로운 사회적 여건 하에서 창작 활동을 하게 된다. 1993년에는 카작스탄공화국 대통령령에 의하여 카작스탄 공훈 문화 일꾼이란 칭호가 수여되었다. 작가 한 진은 1993년 7월, 압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문학 창작 활동을 통하여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들의 민족발 보존과 민족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족주의자이다. 아래 인용문은 그가 얼마나 민족말과 민족문화의 앞날에 대해 고심하였는가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

갑자기 눈 앞에 쏘련 지도가 떠오르군 한다. 아랄해나 까쓰빠해가 없는 지도가 말이다. 무슨 놈의 도깨비 장난인지 알 수가 없다. 하긴 정말 이 바다 같은 호수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쏘련 땅의 면모가 달라질 것이다. 이것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팔다리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느낄 것이다. 이런 불행은 또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도 자극을 줄 것이다. 왜 이런 환영이 나를 괴롭히는가? 아마 큰 불안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쏘련 조선사람들의 말과 글²⁰⁾, 그들의 문학과 예술, 문화생활의 앞날에 대한

19) 한 진이 소련 국적을 신청하게 된 데는 리경진(필명 리 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974년 9월 10일 리 경진이 한 진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의하면, 아래에 요약 인용한 일곱 가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한 진에게 소련 국적을 받고 정상적인 보다 충실된 생활로 넘어 갈 것을 권고 하며 최 국민과 정 추(남한 출신으로 해방 이후 북한에 거주하였으며 조선 유학생으로 소련에서 학업 중 정치 망명한 카작스탄 알타이 거주 작곡가)에게도 그 편지를 보여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1) 국적 문제는 사상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소련 기관이 아니라 조선 측의 반대였다. 2) 국적 문제는 엄연히 우리의 감정, 정서와 관계된 문제다. 우리의 눈 앞에 국적과 개인 출세를 손쉽게 관련시키는 자들이 나타난 후 더 큰 비중을 가지게 되었다. 3) 소련 측은 조선 측의 오랜 고집과 관련된 이 문제를 마침내 긍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찾아 내었다. 4) 일부 동무들이 사전에 상의 없이 국적을 바꾼 이후로 사실상 우리 내부의 법은 더 존재하지 않는다. 5) 아직까지 국적을 바꾸지 않은 동무들의 국적 이전을 부정적인 동기와 관련시킬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6) 정상적인 생활로 넘어 간다면, 실지로 필요한 호상 교제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창작에도 유리한 것이며, 따라서 자질 향상에 새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7) 국적을 받는다는 것은 소련 공민으로서의 임무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공민증 없이도 대다수 동무들이 자원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양심의 분부로 하여온 일이다. 다른 한편 소련 동지들도 우리가 조선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으라고는 아무 때도 하지 않을 것이다. (황호 속의 내용은 글쓴이가 덧붙인 것임.)

20) 한 진처럼 조선 유학생 신분으로 소련에 정치 망명한 작가들은 고려사람과 고려말이란 용어 대신에 조선사람과 조선말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는 근심이 잠시도 나를 놓아주지를 않는다.」(맞춤법은 원문대로)

3.2. 한 진의 희곡 작품과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단

한 진이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바루나울시에서 일할 당시 한글로 쓴 소품들을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크즐오르다시에 있는 레닌기치사에 보냈는데 이 작품들이 신문사의 호의를 사게 되어 문학부의 직원으로 초빙된다. 1963년 레닌기치사의 문학부 직원으로 직장을 옮긴 한 진은 『레닌기치』지면에 단편소설과 소품들을 발표하며, 타 민족 작가들의 희곡 작품을 한글로 번역하는 등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한다.

1963년 한 진의 최초의 번역 작품인, 프랑스 작가 몰리에르의 희곡 「할 수 없이 의원질」(Lekar ponevole)이 국립조선극장에서 상연되어 찬사를 받는다. 『레닌기치』에 실린 「몰리에르와의 상봉」이란 글에서 한 예브제니는 한 진의 희곡 번역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젊은 번역자인 한 진 등우는 이 어려운 희곡의 번역을 망심적으로 창작적으로 실행했다. 이것은 아주 힘든 번역이다. 대체로, 비단 나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관중들에게 독자적인 몰리에르의 말을 전달하고 리해시킨 훌륭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맞춤법은 원문대로)

1964년 슈톡 (Shtok)의 희곡 「레닌그라드의 변영」(Leningradskii prospekt)을 번역하여 큰 성과를 거둔다. 희곡 작품 번역을 계기로 극작가로서 능력을 인정 받은 한 진은 국립조선극장에 초빙된다.

카작스탄 한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역시 고려사람과 고려말이다. 카작스탄에 거주하는 타 민족들도 대개 고려사람, 고려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글로 번역되어 출판된 강제 이주 제2세대나 3세대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조선말이나 조선사람이란 용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러시아어가 모국어로 되어버린 이들 고려사람 작가들의 작품을 정치 망명한 북한 유학생 출신이나 사할린 출신 한인들이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어로 창작한 이들 문학 작품들은 고려사람 작가들이 썼다 하더라도 러시아어권 독자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어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순수한 소비에트 한인문학은 아니다.

21) 한 진 외, 『오늘의 빛』(자수식출판사, 1990), 3쪽.

1965년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국립조선극장 문학부장으로 임명되면서 희곡을 쓰기 시작하여 첫 작품인 「의부 어머니」(Macheha)를 무대에 올린다. 이 희곡은 가정의 윤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작품이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소련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3막 8장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한 젊은 여인이, 두 살 먹은 딸 순희와 백일도 채 지나지 않은 아들 워뜨르가 딸린 고봉질하는²²⁾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고봉질을 떠난 남편은 인편을 통해 “다른 녀편네를 했다.”는 편지를 아내에게 보내고 자기 자식들을 버린 채 가족을 떠나고 만다. 남편이 떠난 뒤 여인은 사내아이를 낳으나 3일만에 죽어 버리고 만다. 제 낳은 자식을 잃어버리고는 앞이 캄캄해진 여인은 남편이 버리고 간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재가를 하려고 여러 번 생각하지만 결국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꾼다. 여인은 남편이 버리고 간 자식들을 자신의 친 자식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뒤, 남편의 환갑이 되던 해 어느 날 아이들의 생부가 나타난다. 여인은 자신이 의붓어미임을 성인이 된 순희와 워뜨르에게 밝히고 그 동안의 생부의 행적과 자신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며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생부 문제를 결정하기를 부탁한다. 집을 찾아 와 다시 함께 살기를 요청하는 남편에게, 아래 인용하는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인은 또 다른 한 여자가 불행해 지지 않도록 사회 도덕적 차원에서 끝내 남편을 거절하고 만다.

어머니: 오긴 왜 왔소?

아버지: 살면서 돈 낭이나 마련해 왔는 데 몽땅 들여 놓을 테니 어떻게 같이 살아볼 수는 없겠소?

어머니: 난 당신과 싸움을 할려고 하지 않소. 또 잘못을 따지려고도 하지 않소. 이 일은 그럴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러니 좋게 말을 합시다. 글썄 당신에게는 다른 로친도 있지 않소?

아버지: 그건 내 처가 아니요. 우리는 등록을 하지 않고 살았소. (공민증을 내 보인다.) 여기에는 당신이 아직 내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로친에게서는 자식도 없습니다. 돈이나 좀 쥐여주고 나오면 되우.

22) 고봉질은 경작할 땅이 없는 사람들이 농사철이 되면 타 지역에 가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돌아 오는 일종의 계절적 이동 소작농을 말한다.

어머니: 어떻게 나오면 되겠소. 모르긴 하지만 그 사람도 당신만 믿고 살아 오겠지요. 그 너자를 또 버린다면 당신은 일생에 못할 짓을 두 번이나 저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같이 산단 말이요? 자식들도 또 나도 이젠 당신에게 아주 남이 아깝니까? 그러니 할 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말을 내지 않는 것이 좋겠소. (맞춤법은 원문대로)

버렸던 아내로부터 거절 당한 남편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생부임을 밝히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집안에 자기를 받아 주기를 애원하나, 이들과 저도 생부를 버리고 의붓어미를 택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 희곡의 소재는 그 당시 소련 사회에서 흔히 있는 사건이었지만,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연극이란 매체를 통하여 관객들에게 고발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작품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1964년에 발표된 채 영의 「무지개」(Raduga) 같은 희곡도 도덕 문제를 다룬 작품이지만, 가정의 도덕이나 윤리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은 한 진의 「의부 어머니」가 처음이다. 아래 인용하는, 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굴리스탄시에 사는 중학교 9학년 학생이 당시 연극에서 의붓어미 역할을 한 이 함덕 카자흐스탄 인민배우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의부 어머니」의 공연은 파탄된 고려인 가정의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소중한 의붓어미! 제가 당신을 한 진의 「의부 어머니」 연극 공연에서 보고 아무에게도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울었습니다. 그 무슨 사랑으로 타인인 당신은 생부로부터 버림받은 자식들의 운명에 상관을 합니까! 이제는 당신이 저에게는 제일 정답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의붓어미가 저에게 가진 애정을 믿도록 강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당신은 저에게 어머니를 되돌려 주었습니다.²³⁾

연극 「의부 어머니」에서 부각된 가정 문제는 연성용의 희곡 「자식들」(Synovya 1974)이나 「강직한 여성」(Jenshina s harakterom 1979)에서 다시 주제로 등장한다. 한 진의 작품 「의부 어머니」가 고려인 사회에 미친 영향이 대단하여 1976년에 국립조선극장에서 다시 공연되기도 하였다.

23) Kim Iosif, 『Sovetskii koreiskii teatr』(Oner, 1982), p. 23.

1967년에는 「고용병의 운명」(Sudba soldata-naernnika)을 발표한다. 월남전에 참가한 한국 병사가 겪는 수모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자신의 피를 팔아 살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던 실업자 청년 철수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월남전에 지원한다. 월남의 수림에서 죄없는 사람들을 죽인 피의 대가로 달러를 벌게 되지만 결국에는 자신도 전선에서 희생되고 만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소비에트 한인문학 회극 작가이자 연출가인 김이오시프는 한 진이 이 작품을 통하여, 굶주림 때문에 월남전에 참전한 철수와 같은 의용병의 운명은 남한의 박정희 반민족 매국정권이 낳은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²⁴⁾

1968년에는 국립조선극장이 크즐오르다시에서 알마아따시로²⁵⁾ 옮겨 간다. 조선극장이 수도 알마아따시로 옮겨간 뒤부터 한 진은 더욱 더 열성적으로 창작 활동에 몰두한다. 도시의 고려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소비에트화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민족 문화의 보존을 위해 민족적이거나 역사적인 소재에 관심을 가진다. 작가가 민족 말과 글의 보존을 위해 고민하였던 시기로 다음 인용문은 작가의 이러한 평상시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모래시계의 모래가 흘러내리듯 조선말을 아는 조선사람의 수가 시시각각 줄어가고 더욱이 조선말을 아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어졌다. (.....) 조선사람들이 제 말을 잊어버린 원인의 하나는²⁶⁾ 또한 우리 작가들이 훌륭한 작품을 쓰지 못하여 독자들의 독서욕을 북돋아

24) Kim Iosif, 『Sovetskii koreiskii teatr』(Oner, 1982), p. 44.

25) 소련이 붕괴 된 1991년 12월 이후 러시아말 식의 알마아따라는 카작말 명칭인 알마티로 바뀌었다.

26) 한 진은 인용한 글의 윗 부분에서 (한 진 외, 『오늘의 빛』(자수석출판사, 1990), 4쪽) 고려사람들이 카작스탄으로 이주한 후 그들의 민족 학교들이 고려말을 버리고 러시아어로 교습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37년. 조선주민들과 함께 신문사와 극장, 사범대학도 카사흐스탄으로 이주하였다. 그 다음 해인 1938년에는 사범대학과 다른 조선학교들이 로씨야말 교수로 넘어갔다. 이때 조선학교를 없애고 로씨야말로 자녀들을 교육해 달라고 학부모들의 많은 편지가 정부에 들어갔다고 한다. 우리 조선 유지들의 탄원서들이었다. 쓰련의 조선사람들이 자기의 조선말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은 아마 이때부터 였을 것이다. 물론 로씨야말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학생들은 빨리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들 속에서는 많은 학자들도 나왔다. 로씨야말 교육은 긍정적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말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맞춤법은 원문대로)

주지 못한 데도 있을 것이다. 조선 작가들이 독자들의 흥미를 올리는 훌륭한 작품을 썼다면 그 책을 읽기 위해서라도 조선글을 배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늙은이들이 조 명희 선생의 「짓밟힌 고려」²⁷⁾를 암송하는 것은 본 일이 있다. 이런 뜻에서도 작가의 사명은 크다.

우리들은 문화의 유물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것들을 복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고 있다. 크든 작든 한 민족의 언어는 두말할 것 없이 문화의 기념비이다. 위대한 기념비이다. 인민은 자기의 언어로 하여 불멸하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장 큰 재부인 자기 언어를 준 자기 인민 앞에 지닌 자손으로서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문화의 기념비인 언어를 과거의 고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산 것은 썩지 않는다. 또한 잘 돌보아주면 발전할 수도 있다.

우리 말이 없으면 문학도, 극장도, 신문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얼마 전만 하여도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민족주의의 표현이나 협소한 견해라고 감투를 뒤집어 씌우며 떠들던 조선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냥 가만 있다가는 오래지 않아 글을 쓸 사람은 커녕 글을 읽을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연극을 놀 사람은 물론 연극을 구경할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²⁸⁾ (맞춤법은 원문대로)

한 진은 작품의 문학적 가치는 물론 사용하는 어휘 하나 하나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가며 훌륭한 작품의 창작을 위해 전념하였다. 물론 이러한 그의 작가적 태도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으니 시와 소설을 창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문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글들을 함부로 발표하며 스스로 작가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에트 카자흐스탄 한인문학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공헌을 한다. 1984년 2월 16일자 「레닌기치」에 실린 「쓰기 전에 구상부터 철저히」라는 글에서 한 진의 이러한 측면을 엿 볼 수 있다. 이 글은 1983년 한 해 동안 「레닌기치」에 발표된 몇 편의 단편소설에 관

27) 이 작품의 전문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황동민 편집, 『조명희 선집』(조선과학원 동방도서출판사, 1959), 443-446쪽.

본 논문에서는 아래에서 인용하였음.

김세일, 『역사기록소설 흥범도』(제3문학사, 1989), 14쪽.

일본제국주의의 무지한 발이 고려의 땅을 짓밟은 지도 이미 오래다.

그 놈들은 근대와 경찰과 법규와 감옥으로 온 고려의 땅을 없애 놓았다.

칭칭 없어 놓았다 온 고려대중의 입을, 눈을, 귀를, 손과 발을.....

28) 한 진 외, 『오늘의 빛』, 자수석출판사, 1990, 5-6쪽.

한 평이다. 김용택의 「어느 곳에서 찾는담.....」, 김보리스의 「갈림길에서」, 오블라지슬라브의 「귀뺨」 그리고 남철의 「민들레꽃 필 무렵」과 같은 작품에 나타난 소설 구성상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무엇을 어떻게 고치고 보완하여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의 비평적 태도가 신진 작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미움을 샀으리라고 본다. 최국인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자세히 평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문인들이 없었던 당시 한인 문단 상황에서 작가 한 진의 존재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한 진의 새로운 작품이 무대에 올려질 때마다 연극 회곡 작가로서의 그의 명성은 더욱 더 유명해진다.

1970년에는 카작스탄 작가 무흐타르 아우에조프(Muhtar Auezov)의 희곡 「검은 눈」(Kara koz)을 번역하여 조선극장 무대에 올린다.

1972년에는 조선극장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키르기즈스탄 작가 친기즈 아이트마토프(Chingiz Aitmatov)의 희곡 「모성의 들에」(Materinskoe pole)를 번역하여 무대에 올린다.

1973년에 박지원의 작품을 각색한 「량반전」(Ckazanie o yanbane)을 무대에 올린다.

1974년에는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민담 내용을 각색한 「봉이 김 선달」(Boni Kim Sen Dar)을 발표한다. 한 진은 주인공의 활동을 산대극의 전통적인 수법에 바탕을 두고 희극적으로 전개한다.

1975년에는 무스타이 카림(Mustai Karim)의 희곡 「월식하는 밤에」(V noch lynnogo zatmeniya)를 발표한다.

1977년에 「어머니의 머리는 왜 세었나」(Sedina materi)를 조선극장 무대에 올린다. 1976년에 쓴 한 진의 희곡을²⁹⁾ 연성용이 1977년에 연출한³⁰⁾ 작품이다.

1979년에는 「산 부처」(Jiboi budda)를 무대에 올린다. 이는 후삼국 시대 말기 궁예가 태봉국을 세우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같은 해에, 카작민족 영웅 서사시인 「용사 코블란디」(Koblandy batyr)를 번역하여 무대에 올린다.

1981년에는 「토끼의 도둑」(Priključeniya zaitcha)을 발표한다. 살아있는 토

29) 한 진, 『한진 희곡집』(사수석출판사, 1988), 158쪽.

30) Kim Iosif, 『Sovetskii koreiskii teatr』(Oner, 1982), 202쪽.

끼의 생간을 먹이면 용왕의 병이 낫는다는 의원들의 말에 따라 거북이가 육지에 올라가 토끼를 피어서 바다로 데려오나, 토끼는 용왕에게 바다에 오기 전에 간을 꺼내 오동나무 잎에 싸서 바위 틈에 감추어 놓았다고 속여 다시 육지로 돌아가게 되는 토끼전 을 4막으로 구성한 희곡이다.

1983년에는 「너 먹고 나 먹고」(Ya - tebe, ty - mene)를 발표한다.

1985년에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 「폭발」(Vzryv)을 발표한다.

1987년에는 「나무를 흔들지 마라」(Derebo nelzya rackachatch)를 발표한다. 이 작품은 한국동란 중 한 인민군 정찰병과 국군 정찰병 한 명이 격투 중, 강이 갑자기 범람하여 육지에 물이 차 오르자 강 기슭에 있는 한 큰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다. 나무 위에서 상대방이 앉아있는 가지를 흔들며 생사 결투를 하다가 나중에는 친구가 된다는 민족애를 바탕으로 구성한 희곡이다. 이 작품은 1991년 9월 15일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극장(The National Theatre of Korea)에서도 공연되었으며, 이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 받아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국립조선극장이 채외동포 문예상을 받기도 하였다. 서울의 관객들에게 조선과 한국, 두 나라 국민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988년에 한 진의 첫 희곡 작품 선집인 『한진 희곡집』이 출간된다. 이 선집은 그 동안 발표된 작품 가운데 「산 부처」, 「의부 어머니」, 「나무를 흔들지 마라」, 「토끼의 모험」4편을 담고 있다. 아마 이 네 편의 작품을 한 진은 자신의 대표작으로 여긴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희곡들은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공연 되는 조선극장의 대표적 작품들이다.

1989년에는 1937년, 「통과인 정 블라디미르」(1937, 'Tranzitnyi Ten Vladimir)를 발표한다.

1993년 암 치료를 받으러 모스크바로 떠나면서 한 진은 집필 중이던 희곡 「서울에서 온 손님」의 원고를 가지고 가지만 작품을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7월 13일 61세로 일생을 마친다.

3.3. 한 진의 소설 작품과 민족주의적 색채

『레닌기치』에 발표된 한 진의 단편소설 작품으로 「서리와 별」, 「축포」, 「소

나무' 등 여러 편이 있다. 이 가운데 「녀선생」³¹⁾, 「공포」³²⁾,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³³⁾는 한글로 출판된 고려사람 문학작품 선집에 수록되었으며, 「공포」와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러시아어로 발간된 고려사람 문학작품 선집에 실리기도 하였다.³⁴⁾

「녀선생」은 레닌그라드사범대학을 갓 졸업한 류싸라는 젊은 여선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발령지 시골로 가는 열차 안에서 류싸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단편 소설이다. 레닌그라드사범대학을 졸업한 자신이 시골로 발령을 받은 것에 자존심이 상해 못 마땅해 하던 류싸 옆에 우연히 니나 이와노부라는 여자가 동석을 하게 된다. 니나 이와노부나는 모스크바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처녀 개간지에 와서 교편을 잡다가 로동청년학교 상급학년을 가르치느라고 매일 기차로 통근을 하는 여선생이다. 이 기차간에서 만나는 모든 노동자 학생들이 니나 이와노부나 선생을 찾아와 허물없이 학업에 대해 상의를 하는 것과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니나 이와노부나 선생의 태도를 보고 류싸의 생각이 바뀐다. 불평 없이 시골 노동자들의 교육에 헌신하는 니나 이와

31) 김광현, 『해바라기』(사수식출판사, 1982), 83-87쪽.

32) 한 진 외, 『오늘의 빛』(사수식출판사, 1990), 9-40쪽.

「공포」는 1989년 5월 23일 『레닌기치』에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1989년 5월 26일 카작어 문학신문 『카작문학』(Kazak adebieti)에 「Urei」(공포)라는 제목으로 카작말로 번역 소개되었다.

33) 전문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한 진 외, 『오늘의 빛』(사수식출판사, 1990), 40-51쪽.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1988년 7월 15일 카작어 문학신문 『카작문학』(Kazak adebieti)에 「Sol meken kalai atal'mak」(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그리고 1991년 2월 23일자 『고려일보』에 한 진의 아들인 작가 한안드레이가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Kak hazvyvaetcy a to mecto.....」(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라는 제목으로 소개하였다.

박미하일 편집의 『Zveo nejnosti』에는 제목이 「Kak nazyvaetcy a to kraï」(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지)로 되어 있으나 작가의 부인에 의하면 작가가 붙인 러시아어 제목은 「Kak hazvyvaetcy a to mecto.....」(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였다고 한다. 글쓴이 생각에도 “to kraï”(그 지역)보다는 “to mecto”(그 곳)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작품에서 죽어가는 어머니가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은 고향이라고 하지만 죽어서 자기가 묻힐 곳은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4) Pak Mihail, 『Zveo nejnosti』(Gylım, 1994), pp. 49-78.

노부나 선생의 모습을 보고 류씨가 감동한 것이다. 결국 류씨는 당국에서 그녀를 시내에 있는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것을 기어코 거부한 후, 지진하여 처너지 집단농장 학교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소련의 사회주의 정책 노선을 바탕으로 구성된 사회적 사실주의 작품이다.

한 진의 민족주의 성향이 반영된 작품은 「공포」와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인데, 소설가로서 한 진이 어떻게 민족 문화 보존과 민족 정체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들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공포」는 그 동안 금기시되어 오던 강제 이주와 관계된 사실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한 작품이다. 한 진은 이 작품을 통하여 고려사람들이 어떤 환경 하에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억압을 당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공포」가 『레닌기치』지면에 발표된 것은 1989년 5월 29일이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시기였지만 아직 소련이 건재한 때에 이러한 소재를 작품화한다는 것은 작가 개인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 사명감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제목으로 쓰인 「공포」는 강제 이주 초기 고려사람들이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했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작품의 서두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자지러지게 짊어대는 개의 울음소리에 리선생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캄득 꼬부린 두다리의 무릎이 자꾸 죄어들어 종다리가 허벅지에 들어붙었다. 그것은 갑자기 그를 험한 공포때문에만이 아니었다. 방안이 추웠다. 몸이 오싹오싹 얼어들어왔다. 그러수록 몸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뼈치카의 불은 꺼진지 오랜가부다. (.....) 이 반원주의 로씨야화독은 장관에서 천만까지 맞닿은 큰 것이었으나 아궁이 좁아서 석탄을 많이 넣을 수가 없었다. 그레 잠들기전에 분탄을 이겨 불을 던져놓으면 새벽녘에는 다 타버려 방안은 한 지쳐럼 추웠다. 그러나 자정은 훨씬 지났을거다. 몇시나 됐을까? 네시? 다섯시? 그럼 지금이 바로 하루 24시간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시간이다. 곧드라지게 잠을 자는 바로 이 시각에 사람들을 잠으려다닌다고들 했다. 한 달전에 김선생이 불들려갔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이 시각에 집에 왔더라고 그 부인이 말을 하였다.

어느 집 개일까? 열집 개는 아니다. 그 다음집인가? 아무튼 민것은 아니다. 저 개가 저렇게 기금을 하여 짊어대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것이다. 개는 다른 짐승을 보고는 저렇게 절제를 하여 오래 짊지름 않는다. 개가 저렇게 짊어대면 짐승들은 없어진다. 그러니 저것은 사람을 보고 짊는 것이 틀림없다. 개가 숨을 들리느라고 잠간 울음을 그쳤다가 다시 짊기 시작하였는

대 갑자기 쾅하고 그 소리가 끊어졌다. 개짖는소리가 꺼지자 귀가 쟁쟁하도록 방안이 조용해졌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개가 저절로 저렇게 갑자기 울음을 그칠 수가 없다. 아마 총탄같은 그 어떤 묵직한것에 얻어맞아 대갈동이 탁산이 됐을수도 있다. 그러자 참을 수 없는 무서움이 엄습해왔다.³⁵⁾

민족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한 진의 단편 소설 「공포」와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송 라브렌띠의 단편 소설 「삼각형의 면적」³⁶⁾이나 희곡 「기억」³⁷⁾과 함께 카작스탄 한인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포」는 리 빠벨 필립프비치 화학 박사후보의³⁸⁾ 체험담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리선생이 어느 주말에 우연히 학교에 들렀다가 한국 서적들이 조각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원동고려사범대학에서 크즐 오르다로 실어온 도서관의 책들이 휩쓸이라는 유대인 대학장의 지시에 의해 비밀리에 소각되고 있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리선생은 책들을 소각하던 화부와 승강이 끝에 격투를 벌인다. 황급히 달려온 어린 아들로부터, 화부의 동생이 갑작스레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는 전갈을 받자, 화부는 태우던 책들을 남겨둔 채 어린애를 데리고 방에서 나간다. 화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리선생은 죽음을 각오하고, 소각되지 않은 나머지 책들을 자기 연구실로 옮긴 뒤, 이들 책 대신 연구실에 있던 묵은 신문철을 가져다가 태운 재를 화덕에 가득하도록 채워 놓는다. 더 큰 도서관으로 이 책들을 보내면 보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알마아타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이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한다. 시내에 나가 식료품 상점에 들려 다카르니 국수를 넣었던 큰 상자 두개를 구해 이 책들을 포장한다. 포장된 상자들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기차

35) 한 진 외, 「오늘의 빛」(자수식출판사, 1990), 10-11쪽.

36) 위의 책 82-97쪽.

37) 김필영, 「송 라브렌띠의 기억과 카작스탄 고려사람들의 강제 이주 체험」, 『비교한국학』 제4호(국제비교한국학회, 1998), 107-133쪽.

38) 러시아어의 번역인 박사후보는 조선에서 준박사로 번역한다. 이 명칭을 한국의 박사과정 제도와 비교한다면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당한다. 왜냐하면 박사후보가 되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 사람이 박사후보 과정을 마치게 되면, 그들에게 영어로 영봉하게 번역된 Ph.D.로 단감한 졸업증서를 준다. 소련이나 독립국가연합에서 외국인이 받은, 소위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박사학위가 아니고 바로 이 박사후보 학위이다.

역으로 실어가 알마아타에 있는 카작스탄공화국 국립도서관으로 발송하여 이들 한국 서적 800권을 보존 시킨 이야기이다.³⁹⁾

한 진은 자신이 북한에서 정치 망명한 고려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강제 이주로 인해 고려사람들이 겪은 고난에 관심을 가진 이주 제 2세대 작가 송라 브렌뎀에 비해, 이주 고려사람들의 민족 동질성 문제나 민족 문화 보존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곳을 뭐라고 부르든지?」에서 한 진은 빼앗긴 고향과 조국에 대한 동경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끝내 선조들이 해오던 방식으로 딸이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던 명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장릉 밑에 넣어 두었던 자기가 죽어서 입고 갈 치마, 저고리, 버선 등을 딸을 시켜 꺼내게 하는 장면의 묘사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생각이자, 민족 문화 보존을 위한 작가 한 진의 생각이기도 하다.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틱 해안 어느 조그마한 도시로 남편을 따라 3년 전에 떠난 까쥬샤의 어머니는 새 직장을 얻어 까라간다로 전근을 간 아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며 알마아타에 남아 있다. 금년은 윤년이 있는 해라서 어머니의 생일이 없지만 내년에는 두 번이나 있게 되는 생일에 꼭 한 번은 어머니를 찾아 보겠다고 까쥬샤는 다짐을 하며 직장에서 돌아온다. 문틈에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와달라는 전보가 꽃혀 있었다. 억수같이 퍼붓는 바깥의 비속을 뚫고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야윈 어머니의 손을 자기 이마에 비벼대는 딸과 어머니의 아주 슬픈 만남이었다. 간이침대를 어머니의 자리 곁에 펴고 옛 추억에 잠기는 딸에게 어머니는 옷장 밑에 옷이 든 함을 가져 오게 한다. “그 붉은 천이 명정감이다. 그 속에 나의 성과 본을 적은 종이가 있을 게다.”라고 말한 어머니는 어색한 듯 “그까지 것 있으나 없으나 마 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지 않니. 그래 나도.....”라며 말을 잇고, “거기에 치마저고리가 있다. 내가 죽으면 그것을 입혀 입관하리라.”고 덧붙인다.

39) 이 작품의 소재에 얽힌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김필영, 「해상위 고려사범대학과 한국 도서의 행방」, 『한글새소식』 제299호, (한글학회, 1997), 8-10쪽.

그리고는 베게 밑에서 낫선 글자가 쓰인 봉투를 꺼내서 “여기에 천량이 들었다. 장례비야.”하고 딸에게 말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 비가 많이 내리더니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 지고 저녁에는 눈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씻고 싶다고 하며 딸에게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오도록 했다. 몸을 닦은 뒤 다시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모든 일이 시작과 마지막이 중요하듯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야. 죽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 그런데 말이다. 사람이 태어난 곳은 고향이라는 데 사람이 묻히는 땅은 뭐라고 하느냐?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것도 이름이 있어야 할거야. 고향이란 말에 못지 않게 정다운 말이 있어야 할거야.....”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머리를 빗어드리는 딸에게 “내 죽으면 잊지 말고 머리를 빗겨다우.”라고 당부한다. 그 이튿날에는 큰 변이 생긴다. 어머니가 조선말만 하기 때문에 딸은 전혀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 숨이 넘어가면 인차 눈을 내려 쓸어 감겨라. 그리고 입이 벌어지지 않게 다물게 해다오. 알겠니?”하는 어머니의 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 까쥬샤는 자신을 몹시 안타깝고, 서럽고, 원망스럽게 생각한다. 딸이 조선말을 모른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 어머니가 “저금통장에 이천원이 있다. 그것을 동생과 절반씩 나누어 가져라. 손자녀석 못 보고 죽는 것이 한이다. 그 애 지금 세살이지. 종알종알 말이랑 잘하겠다. 잘 길러라.”며 계속 조선말로 말을 하니, 이 말을 알아 들을 수 없는 딸은 참을 수 없어 침대에 얼굴을 비비며 목을 놓고 운다. 딸의 울음 소리에 달려온 이웃 아주머니가 어머니에게 그 말을 다시 물어 통역을 했다. 그때 동생 계나가 왔다. 어머니와 조선말로 인사를 나누는 동생 계나가 한없이 부러웠다. 마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는 그날 밤에 돌아 가신다. 어머니는 신음 같은 고향소리를 질렀다.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하고는 숨을 거두고 만다. 이 알아 들을 수 없는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까쥬샤의 뇌리에 사무쳤다. 장례를 치르고 까쥬샤가 떠나던 날 이웃 아주머니를 통해서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란 말의 뜻을 알게 된다.

한인물에겐 고향이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죽는 곳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이 운명을 하는 곳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고향이 아닌 곳에서 죽게 될, 원동에서 이주당한 고려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인 것이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도 그 고향에 대한 향수나 추억을 표현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에서 살다가 이국 타향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고려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죽어서 묻힐 장소는 가슴 한 구석에 깊이 간직될 고향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향처럼 사랑스럽고 아늑한 친근한 단어, 즉 어머니가 자신이 죽어서 묻힐 그 곳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 작품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민족 문화의 일면은 가 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조국에 대한 작가 한 진이 느끼는 향수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작품 속에 민족적인 색채를 짙게 가미하여 고려사람 독자들로 하여금 민족문화를 상기시키고 민족적인 것에 애착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임종의 순간에 딸이 알아듣지 못하는 조선말로 계속 대화를 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딸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애 늦게나마 조상들의 말을 나에게 전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아직까지도 사람이 죽으면 러시아식으로 아무렇게나 관을 들고 나가면 될 것을, 머리 부분이 먼저 나가야 하는지 발 부분이 먼저 나가야 하는지를 몰라 고민하는 고려사람들을 볼 때, 한 진의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깔린 민족 문화의 숨결은 관을 들고 고민하는 고려사람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카작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민족 문화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4. 마무리

카작스탄 한인문학은 카작스탄 고려사람 작가가 고려사람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민족어인 고려말로 창작하고 발표한 작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문학의 시발점은 소련 원동 한인의 강제 이주지 크즐 오르다에서 창간된 순 한글 신문 『레닌기치』가 발간되기 시작한 1938년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카작스탄 한인문학은 『레닌기치』에 발표되었던 작품의 경향과 당시 사회 상황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그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다. 『레닌기치』 창간 때부터 『레닌기치』가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신문으로 승격되기 직전인 1953년까지는 태동기이고, 『레닌기치』가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신문으로 위치가 승격된 1954년부터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기 직전인 1985년까지는 형성기로 볼 수 있으며,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1986년부터 『레닌기치』의 제명이 『고려일보』로 바뀌기 직전인 1990년까지는 성장기에 해당하며, 『레닌기치』의 제명이 『고려일보』로 바뀌고 소련이 해체되어 카작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카작스탄공화국으로 독립한 1991년부터 강제 이주 60주년을 맞은 1997년까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한 진(1931-1993)은 모스크바에 있는 전연방국립영화대학에서 유학하던 중 1950년대 중반 소련에 정치 망명한 조선 출신 작가이다. 그가 대학을 졸업한 뒤 얼마 동안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바르나올지역 텔레비전방송국 책임편집자로 일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문학 활동에 종사하였다. 한 진은 카작스탄 한인문학 형성기에 『레닌기치』를 통하여 문단에 등단한 뒤 한인문학 성장기까지 활동을 한 희곡 번역가이며, 희곡 작가이자 단편 소설가이다. 1963년 레닌기치사의 문학부로 직장을 옮기면서 『레닌기치』 문예란에 소품과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프랑크 작가 몰리에르를 위시한 타 민족 작가들의 희곡 작품을 번역하여 조선극장 무대에 올린다. 희곡 번역가로서의 한 진의 능력이 인정되어 1965년에는 조선극장 문학부장으로 초빙된다. 어느 파탄된 가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의부 어머니」를 통하여 고려사람 사회에 윤리 문제를 제기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다. 「의부 어머니」의 성공은 한 진이 희곡 작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동기가 되고 대가로서 발돋움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틈틈이 타 민족 작가들의 희곡을 민족말로 번역하여 조선극장 무대에 소개하여 민족 말 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역사적인 사건이나 민속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창작한 「양반전」, 「봉이 김 선달」, 「산부처」, 「토끼의 모험」, 「나무를 흔들지 마라」 등 12편의 희곡 작품을 조선극장 무대에 올려 카작스탄 고려사람들로 하여금 민족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영향으로 언론의 통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에는 「공포」와 「그 곳을 뭐라고 하는지?」 등과 같은 작가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단편소설을 발표하기도 한다. 「공포」는 강제이주로 인하여 문화적으로 억압을 당한 카작스탄 고려사람들의 과거 역사의 한 면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하여 소련의 가혹한 정책이나 사

회 구조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의 보존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은 이주 고려사람들의 민족정신을 후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곳을 뭐라고 하는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작가 자신의 향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민족적인 색채를 바탕에 깔고 있는 이 작품에는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 사회에서 점점 잊혀지고 사라져 가는 민족말과 민족 문화를 애석해하는 작가의 민족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강제이주로 인하여 고향에 묻힐 수 없는, 임종을 앞둔 한 여인이 내 뱃속 “사람이 태어난 곳은 고향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묻히게 되는 곳은 뭐라고 부르는지?”라는 말 한마디는 고려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한 진은 강제 이주로 인하여 민족말과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카작스탄 이주 고려사람 제2세대들의 문학적 공백을 메워주고, 문학 작품 창작에 관심을 가진 젊은 고려사람들을 지도하여 후배 작가 양성에 공헌한, 소비에트 카작스탄 한인 문단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작가이다. 또한 타 민족 작가들의 희곡 작품을 민족말로 번역하여 고려사람들의 민족말 보전과 발전에 기여하고 한민족의 역사적 사건이나 민담들을 희곡화 하여 고려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며 고려사람들의 민족 문화 보존에 크게 기여한 민족주의자이다

참고문헌

- 『고려일보』, 1991년 2월 23일자와 1993년 7월 17일자.
『레닌기치』, 1938년부터 1990년까지.
김 광현 외, 『해바라기』(사수시출판사, 1982).
김 세일, 『역사기록소설 흥범도』(제3문학사, 1989).
김 필영, 「해삼위 고려사범대학과 한국 도서의 행방」, 『한글새소식』제299호(한글학회, 1997).
김 필영, 「『레닌기치』에 나타난 쏘베트 한인문학: 강제 이주지 중앙아시아의 시적 심상」, 『비교한국학』제3호(국제비교한국학회, 1997).
김 필영, 「송 라브렌티의 『기억』과 카작스탄 고려사람들의 강제 이주 체험」, 『비교한국학』제4호(국제비교한국학회, 1998).
황 동민 편집, 『조명희 선집』(쓰현과학원 동방도서출판사, 1959).
한 진의 부인 지나이다 베트로바 개인 소장 자료들.
한 진, 『한진 희곡집』(사수시출판사, 1988).
한 진 외, 『오늘의 빛』(지수시출판사, 1990).
Kim Iosif, 『Sovetskii koreiskii teatr』(Oner, 1982).
Pak Mihail, 『Zveo nejnosti』(Gylım, 1994).
『Vechernii Almaty』(석간 알마티) 1993년 7월 19일자.
『Kazak adabietı』(카작 문학) 1988년 7월 15일자와 1989년 5월 26일자.

Abstract

Korean Literature in Soviet Kazakhstan and The Role of Playwright Han Jin (1931-1993)

Kim Phil-Young

The Korean literature in Soviet Kazakhstan is defined as the works published by Korean writers in Soviet Kazakhstan. It is written in their national language for the Korean readers. It is natural to consider the beginning of the Korean literature in Soviet Kazakhstan to be in 1938, when the Koreans, who were deported from the Soviet Far East, established the Korean daily newspaper the *Lenin Kichi* in Kzyl-Orda. Taking into account the tendency of the social circumstances and the works published in the *Lenin Kichi*, we can divide the period of the Korean literature in Soviet Kazakhstan as follows:

- 1) The period of introduction: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Lenin Kichi* in 1938 until 1953. The Soviet authorities strictly condemned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 2) The period of edification: From 1954, when the *Lenin Kichi* was promoted to its status as the republican paper of the Soviet Kazakhstan, until 1985. The deported Koreans had finally attained the USSR citizenship and had devoted themselves to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The Authors Press published several collections of Korean literary works.
- 3) The period of development: From the start of the Perestroika and Glasnost in 1986 until 1990. Thanks to the somewhat loosened press control, literary works reflecting the experience of the deported Koreans

were published.

- 4)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1991, when the title of the *Lenin Kichi* was changed to the *Koryo Ilbo* and the Soviet Socialist Republic of Kazakhstan proclaimed its independence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until 1997, which marke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deportation of Koreans to Kazakhstan. The social circumstances became favorable for the writers, but there weren't any Soviet Koreans who were capable of creative writing in their national language.

Han Jin (1931-1993), who was a native writer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asked for political asylum in the mid 1950s, when he was studying at the Entire Unions' State Institute of Cinematography(Vsesoyuznyi Gosudarstvennyi Institut Kinomatografii, VGIK) in Moscow. He made his literary debut through the *Lenin Kichi* during the period of edification of the Korean literature in Soviet Kazakhstan. At the end of the transition period, 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iterature in Soviet Kazakhstan as a playwright, short story writer, and a translator of international plays. After graduating from the VGIK institute in 1958, he first worked as an editor-in-chief of the Barnaul Regional Television Network in the Soviet Union. In 1963, he moved to Kzyl-Orda to work at the department of literature as a journalist of the *Lenin Kichi*. At the *Lenin Kichi* he published short stories and essays. At the Republican Korean Theater or Choson Kukchang in Kzyl-Orda, he presented foreign plays, which he had translated into Korean. His literary abilities as a translator of plays were recognized by the Korean literary world in Soviet Kazakhstan.

Soon after he was invited by the Republican Korean Theater in 1963, and was nominated to be the director of the literary department. In his presentation of "Uibu Omoni"(Stepmother), he expressed the tragedy caused

by the rupture of a Soviet Korean family. He portrayed the moral problems facing the Soviet Korean society. The success of the "Uibu Omoni" gave the author a stepping-stone to become an internationally renowned playwright. He translated foreign plays and presented them at the Republican Korean Theater. Through his translations, he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Korean dialect used in Soviet Kazakhstan known as Koryomal. During his lifetime he wrote 12 plays such as "Yangbanjon"(Life of an Aristocrate), "Pongi Kim Sondal"(The Phoenix Kim Sondal), "San Pucho"(The Living Buddha), "Namurul Hundulji Mara"(Don't Shake the Tree), etc. All of them were presented at the Republican Korean Theater. His plays are primarily based on either historical or folk themes of the Korean people. His works helped the Koreans in Soviet Kazakhstan realize their national culture and identity.

By the end of 1980, the control of press has loosened to some degree by the Perestroika and Glasnost. Han Jin published short stories such as "Kongpo"(Fear) and "Kugossul Mworago Purununji"(What People call the Place?), in which the author's national conscience is reflected. In "Kongpo", the author describes a fragment of the Korean history in relation to the cultural oppression, which the Koreans in Soviet Kazakhstan experienced after their deportation. Through his stories, he depicted the national spirit of the Koreans who were deported to Soviet Kazakhstan to the younger generations. In spite of the severe policy of the Soviet Union they promoted the preservation of their national culture without the fears of execution. In "Kugossul Mworago Purununji?", the author expresses symbolic nostalgia for the native village to which he could never return to. His work expressed Korean national traditions that represented the author's national conscience. He worried that the national language and culture would be forgotten within the Korean community of Soviet Kazakhstan. An old Korean woman once said in her last days, "The place where people are born is called a native

village, but what do people call the place where people die and are buried?”. Unfortunately this Korean woman not able to be buried in her native soil due to the deportation of thousands of Koreans like her. This sort of statement sparked many Koreans in Soviet Kazakhstan to reevaluate their national heritage.

Throughout the history of Kazakhstan there hasn't been a greater advoc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munity and its literary society in Soviet Kazakhstan than Han Jin. During his lifetime, Han Jin accomplished four main things:

- 1) The promotion of literary awareness among the younger Korean generation in Soviet Kazakhstan(emphasis on the Korean language).
- 2) The movement towards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guage through the translation of foreign plays in Korean.
- 3) Inspiring of the national conscience through the Korean historical events or folklore used in his literary works.
- 4) The development and training of young Koreans in Soviet Kazakhstan interested in the literary field.

Han Jin contributed to the change in the lives of thousands of Soviet Koreans in Kazakhstan in search of their true identities. Through the works by such great and dedicated writers, as Han Jin, the Soviet Koreans had a chance to reclaim what was long lost and forgotten. The Korean heritage and language that was once condemned, had a chance to become resurrected in modern day Kazakhstan. In closing, my question to you is this: “What do people call the place where people die and are buried?”.